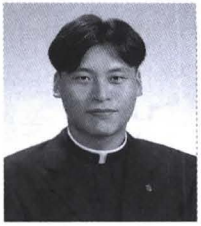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810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청소년에 가장 큰 선물



양재식 신부  
(청소년교육국 부국장)

청소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기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두 손과 옆구리'. 지금 눈앞에 계시는 이 사람이 참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죽음의 증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는 묻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가? 고통과 죽음을 딛고 일어난 신앙의 체험이 있는가? 아니 체험은 없다고 해도 그런 확신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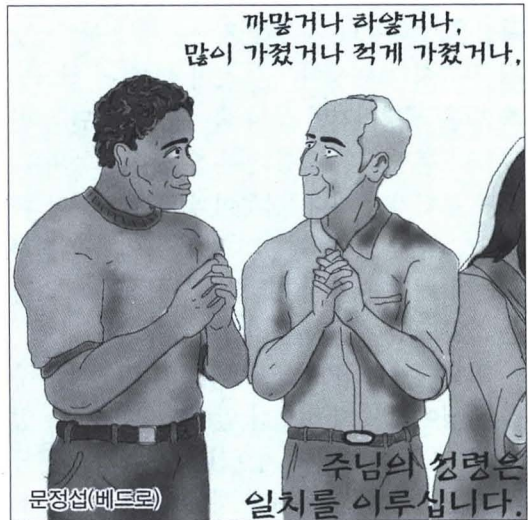
죽음은 나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낸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힘이 되어 줄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에는 입시를 위해

신앙생활을 우선 포기하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정작 청소년기에 자녀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멀어져 있고 자녀는 인생의 어려움마저 이겨낼 정신적 힘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훗날 자녀는 있어도 나를 위해 연미사나 연도를 해 줄 자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소년들에게 하느님께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바쁜 가운데 쪼개어 드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부활을 위한 자랑스런 죽음의 증거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숲머리 생각



# 죄인인 인간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이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 (욘 4:17)

생각하면 한스럽고 원망스런 인생이다.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한다. 세상 한 편에 있는 작은 인생이지만 우주를 담고 있는 듯 고뇌가 깊다. 허약한 몸뚱이 하



용이 없다. 통곡이나 하소연도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운명 앞에 괴로운 것은 죄인이라는 명백한 낙인 때문이다. 이미 죄인인 인간은 뼈와 살을 분리해도 죄를 벗을 수 없다. 인간

나가 세상을 바꾸고 천체의 조화를 영키게 한다. 고통은 채찍이 되고 절망이 되어 심장을 누르고 숨통을 조인다. 살아있다는 게 괴로울 뿐이다. 절망이 극에 달하면 태어난 날조차도 원망스럽다. 고통을 당하는 욕은 죽음의 구렁을 바라보며 괴로움에 탄식한다.

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니 죄를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

마음의 절망은 죽음을 생각하고 단절된 고독감은 벌써부터 지옥과 저주를 찾는다. 소멸될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이 괴롭다. 하느님께 받은 생명이지만 삶의 줄이 끊기니 단죄 받았음이 분명하다. 죄를 입은 인간은 하늘의 옥좌가 두렵기만 하다. 잘못이 없고 올바르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 저주의 멍에가 이미 씌워져 있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도 같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느님 앞에 마주 선 진실이 괴롭다. 빛일 수 없는 마음의 어두움이 진저리난다. 귀하다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건만 남는 것은 썩어질 허울 뿐이다. 하느님께서 거두시면 모두들 하릴없이 죽어 가리라. 인생이 괴로운 것은 고통 때문만은 아니다. 소멸의 아쉬움과 함께 죄의 멍에가 인간을 눈물짓게 만든다. 몇몇한 인생이라 자신하여도 고통에 항변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분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욕의 친구 엘리바스도 이를 알고 있다.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이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4,17)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도 소

고통과 신음은 인간이 몸으로 바치는 죄의 고백이다. 그가 누구든 인간은 죄의 멍가를 치러야 한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는 아닐지라도 그곳을 통과할 때에야 만이 빛과 광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오는 기적

올 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교육을 나가기로 했다.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에게 교사가 방문 교육을 하는 것이다. 어지간만 하면 도움을 받아 휠체어라도 타고 등교를 할 텐데 그나마도 되지 않는 학생,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이면 엉덩뼈가 부서질 수 있어 재활원 숙사에서 항상 조심하는 학생이다.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대소변을 거의 방에서 해결하여 본인도 미안하고 괴롭겠지만 자식처럼 돌봐 주시는 숙사 선생님들의 수고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특이하게도 한번 대변을 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대변을 본다. 그래서 수업 가기 전에 불일을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불일을 보는 날은 다음 날로 수업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크고 작은 시름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학생이 안고 있는 시름은 무엇일까? 몸 상태로 보면 정말 큰 걱정과 아픔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방문할 때마다 온몸으로 환하게 웃으며 맞아 준다.

그 긍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숙사 선생님께서는 건강만 했더라면 한인물 했을 거라고 자랑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만 쓰라고 할 때까지 쓴다고 했다. 정말 함께 공부해 보니까 끈기도 있고 공부에 집중을 하였다.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면 누워서 하라고 해도 고개를 가로젓곤 한다. 숙제도 어김

없이 해 놓는다. 공부하는 걸 참 즐거워한다.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비관할 줄도 모르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학생, 물론 아직 숫자도 잘못 세고 글도 잘 못 읽지만 일 년 후, 또 이 년 후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 말을 더듬거리던 아이들이 대화를 하게 되고 중복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게 되고... 그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던가?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로마 8,24-25)

오랜 시간 인내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분명 기적을 보여주신다.



나혜경(가타리나)  
전주 자림학교 교사



### 입당송 지혜 17

은 세상에 충만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는 만물을 총괄하시는 분이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아시도다.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 2,1-11

회답송 시편 104(103), 17 나과 24 나, 29 나-30, 31과

34(30 참조)

◎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2독서 1코린 12,3 나-7, 12-13(또는 로마 8,8-1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또는 요한 14,15-16, 23 나-26)

### 영성체송 사도 2,4-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였다. 알렐루야.



천호성지(주임=박대덕 신부)는 지난 5월 19일(토) 천호 부활성당 축성식을 가졌다. 천호 부활성당은 500여명의 순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성당과 유해 8000구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으로 지하1층, 지상1층의 건물로 2005년 5월 건축을 결정하고 2006년 5월 13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가 완공에 이르렀다. 이날 축성식은 1부 성당 헌납과 성당 개문식 및 축성미사, 축성기도와 도유예식, 2부 축하식 및 강복, 3부 축하연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 축하식에서는 성당신축경과 보고 및 인사와 신축기금을 봉헌한 이복석(요한), 강방자(루시아) 부부와 설계를 담당한 김광현 교수, 유앤아이 이성구 대표, 아름건축 박훈영 대표와 임직원에게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고 천호사랑회장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미사를 집전한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이곳 부활성당을 봉헌한 이복석 형제는 굉장히 큰 부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화장지 한 장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만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요. 지독히 아껴 이런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곳은 많은 순교자들이 묻혀 계시는 곳이며, 이곳에 성지순례를 오면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 묻힌 분들을 보면서 내 마지막은 어떨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곳 성지와 성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천호사랑회 이복석(요한) 회장은 “이것은 개인의 봉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속에 이루어진 봉헌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동욱 기자

● 서신동, 서일, 서곡 성당 합동야외미사

형제본당인 서신동 성당(주임=이태주 신부), 서일 성당(주임=김진룡 신부), 서곡 성당(주임=정성만 신부)은 지난 5월 2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서곡공원에서 예수 승천 대축일 합동 야외미사를 3개 성당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서일 성당은 2001년에, 서곡 성당은 2003년에 서신동 성당에서 분리되었다. 화창한 초여름 날씨 속에서 900명의 신자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멋들어진 판소리로 시작된 친교 한마당에서는 그동안 각 본당에서 준비한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근 기자

● 쌍교동 성당 선교특강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은 지난 5월 20일(주일) 교중미사중 미래사목연구회 정순용(라자로) 형제를 초빙하여 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정순용 형제는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곧 복음을 가까이 하고 읽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인식 기자

● 환경사목 수목원 탐방과 환경미사

전주교구 환경사목(지도=최종수 신부)은 지난 5월 16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수목원을 탐방하

부동산 경매 실전 재테크

- 수강 회원 모집 -  
기간 : 3개월과정(소수 정원제)  
모집반 : 야간반(7:30~9:30) / 주1회(목)  
내용 : 경매절차, 권리분석, 낙찰방법 등  
학습관 : 중화산동 터틀<=>초성사이(인정공원 옆)  
문의 : 063-229-1113 / 019-526-1490  
플러스 옥션 박상윤(안토니오)

조상님을 영구보존으로 모시는 효 실천

진공 주석 유골함/명인 초상 금속사신  
(주)도남  
이진호(실베스텔)  
문의 : 063-282-0138, 018-231-8181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부 특별우대 -

편리한 유행외과

유방·갑상선·하지정맥류  
치질·대장수면 내시경 전문  
원장 전문의 : 김상수(안토니오) / 이종재  
Tel : 277-7582~3  
덕진구 송천동 G.S마트 옆

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 수산  
이복동(마테오)·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국내외 여행 상담

교우님들의 여행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문의 : 232-9200, 9300  
대표 : 박요안(요한) 016-622-8654  
(유)국민여행사  
저희 국민여행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학약국  
(전북대병원 신전문 옆)  
☎(063)275-5700  
FAX. (063)275-5760



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수 신부의 집전으로 환경을 위한 미사를 드렸다. 참가했던 52명의 회원들은 식물의 세계도 인간의 세계와 같이 생존을 위한 갖가지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사드리며,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홍보국 정례

● **나은 2동 성당 참부모교육**

나은 2동 성당(주임=이덕근 신부)은 지난 5월 20일(주일) 1일 부모교육인 '참 부모의 길'을 열었다. 교구 M.E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고 부모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4가지의 주제(추억, 듣기, 재현, 생명을 줌)에 대하여 경험발표, 설문지 쓰기, 그룹토의, 발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오인라 기자

● **장계 성당 성구가혼 전시**

장계 성당(주임=엄기봉 신부)은 성구 가혼 갖기 운동에 참여한 가정의 성구를 본당 내 앞뒤 좌우 벽에 전시하고 있다. 전시중인 성구가혼 40여점은 2개월 전부터 준비된 작품들로 목판에 양각된 성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십자수, 표구,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연태 기자

● **팔복 성당 경로잔치**

지난 5월 18일(금) 팔복 성당(주임=최종수 신부)은 빈첸시오 주관으로 전주시 자원봉사 센터와 함께 팔복동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경로 잔치가 열렸다.

본당신부의 인사말과 함께 두손을 머리위에 올려 하트 모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자 어르신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송하진 전주시장의 축사에 이어 판소리 한마당, 부채춤, 색소폰 연주등 흥을 돋우는 행사와 250명분의 육개장이 모자라 다시 끓여

야 할만큼 어르신들의 참여는 대단했다.

경로잔치 마지막에는 성당에서 마련한 Y셔츠 한장씩을 선물로 받아가면서 모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흐뭇해 하셨다. |이대성 기자

● **다니엘 선교단 광주가톨릭대 대건축제 기도회 봉사**

전주교구 청년성령쇄신봉사회 다니엘선교단은 지난 19일(토)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대건축제의 마지막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기도회봉사를 진행하였다.

'누가 너희의 형제들이냐'를 주제로 신학교 대강당에서 180명의 신학생과 수도자, 성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교단 단원들의 인도로 찬양과 울동은 물론 신앙체험담과 떼제기도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권윤달, 신현숙 기자

● **솔내 성당 본당의 날 행사**

솔내 성당(주임=박종근 신부)은 본당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20일(주일) 35사단 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주님승천 대축일 미사와 2부 체육대회로 진행되었으며 전신자가 함께 야외미사를 드리고 구역별로 맛있는 점심식사와 체육대회를 통해 즐겁게 하나 되는 날이었다. 특히 주일학교는 같은 장소에서 초등부를 대상으로 사생대회와 미니체육대회를 열어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동욱 기자

● **효자동 성당 견진성사**

효자동 성당 (주임 = 양재철 신부)은 지난 5월 20일(주일) 이병호 주교가 집전한 견진성사에서 80명의 신자가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다. 미사가 끝난 후 교육관에서 견진자 모두와 사목회 임원, 준비에 수고하신 분들이 모여 국수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흐뭇한 일치를 이루었다. |홍보국 정례

**AIG 생명보험**

믿고 신뢰하시면

최선의 보답을 해드립니다.

이완기(빈첸시오)

☎ 상담 : 019-9770-2468  
212-9339

아름다운 집을 위한 나의 선택

엠·에스·케이·까사

**참무·카텐·혼수·예단 전문점**

차수연(로사) 홍일(안젤모)

전주 인후동 인골사거리 동부대성학원 1층  
063-243-5128, 011-672-5011

**해맑은 펜션**

www.내린천해맑은펜션.kr

=강원도인제 관광안내=

MT 워크샵 / 연수 / 각종단체모임 / 레프팅

▶ 신과 아름다운 계곡 자연의 고향

강원도인제 해맑은펜션에서는

편안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용순(세레나) 033-463-4486~7

010-8385-4485

**아동 입양 상담 및 후원 상담**

문의 :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입양원.com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병주문 환영, 케이코 할인판매)

**천사의 양식**

효자동 하이마트 · 관촌목화아트 맞은편

김병각(대건 안드레아) 김현하(베로니카)

문의 : 255-1004, 016-627-9966

**<약산> 한빛정형외과**

패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김선규(리파엘), 이정민(글라리아)

- 밤9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제일차 APT옆)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오)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

**30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초·중생 : 7월21일~8월19일

(3주, 4주) 427만원~

대학생 : 6월24일~8월12일(7주) 625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교구장 일정

• 사목방문

5월 29일(화) 장계, 장수  
5월 30일(수) 둔용동

• 해성중·고 주보축일 행사 및 미사

5월 31일(목) 오전 10시

• 견진

6월 3일(주일) 오전 10시 상관

• 미사·행사·모임

•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가정 방문실 월례미사

5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 군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5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군산하나회 미사

6월 3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영상으로 드리는 기도모임

6월 5일(화) 오후 7시 바오로딸 서원  
대상 : 미혼여성(30대 미만)

• 5월의 좋은 영화

교구청 이전 준비로 당분간 영화상영 쉽  
니다. 준비 후 새 교구청에서 만납니다.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6월 2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천동

• 성모기사회 모임

6월 2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전국 로사리오 모임

6월 2일(토) 김천

• 컵스카우트 미사

6월 3일(주일) 오전 8시 송광관련장

• 포콜라레 모임

6월 10일(주일) 오후 2시 복지성당교육관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6월 7일(목) 오전10시 덕진

• 교육·피정·연수

• 새사제 연수

5월 31일(목) 오전 10시 센터

• 천호피정

5월 31일(목) 오전 10시

• 상반기 청년 피정

6월 2일(토)~3일(주일) 해월리 피정의집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 강좌(2차)

주제 : '나'를 찾아서

대상 : 자기이해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사 : 김정민 신부(가정사목)

일시 : 5월 29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 센터 / 교육비 : 30,000원

접수 및 문의 : 가정사목부 285-0041

• 부부 성장을 위한 교육

6월 7일, 14, 21, 28, 7/5, 12, 19, 26매주(목)

오후 7시 센터

대상 : 부부,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강사 : 김정민(가정사목 신부),

박운자(상담심리), 정미진(상담심리)

참가비 : 1인당 7만원 / 마감 : 6월 4일(월)

문의 : 285-0041 가정사목부

• 부모·자녀 참만남(MBTI를 활용한)

6월 3일 오후 1시 30분(성격유형검사 있음)  
10일, 17일(주일) 오후 2시

대상 : 청소년(중·고생) 자녀와 그부모  
(부모자녀가 함께 참석)

내용 : 3일-성격특성과 자기와 타인 이해  
10일-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17일-부모·자녀 참만남을 위한 모색

강사: 김정민 신부와 청소년전문상담가 2인

참가비 : 2인 5만원 / 장소 : 센터

마감 : 5월 31일 / FAX : 285-0049

접수 및 문의 : 285-0041 가정사목부

• 기타

• 가톨릭 미술가회 전시회

5월 25일(금)~31일(목) 예술회관 5,6실

전주카리타스봉사단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재해·재난시 긴급구호를 위한 '전주카리타스봉사단'을 지난 해에 창단하여 양성교육과 구호 및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07년 올해도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6월, 11월 2차에 걸쳐 양성 및 훈련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 재난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봉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과의 네트워크 등에 관한 내용으로 1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자 : 2007년 6월 2일(토), 3일(일) 오후 1시30분 - 오후 5시30분

장 소 : 전주가톨릭신학원(윤호관)

후 원 : 전주시

교육내용 :

1. 일반자원봉사와 재해구호봉사의 정신에 대하여  
- 장상원신부(전주교구사회사목국장)
2. 재해구호봉사자의 역할  
- 윤석인(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카리타스학교장)
3.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 이해  
- 황주태 (전라북도 재난관리과 재해대책담당계장)
4. 지역과 연계한 가상재해설정 시나리오훈련

회 비 : 5,000원

신청마감 : 5월 29일(화)

접 수 처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화 284-5290, 팩스 284-4855,  
e-mail: sarangdari.hanmail.net)

\* 수료증은 11월 2차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발급받습니다.

2박 3일 무료치유피정

(식사 무료 제공)

일시 : 6월1일 오후 6시~3일 오후 3시

장소 : 청주교구성령봉사회관(초정)

교통편(문의) : 043-213-9103

이런과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피정

일시 : 6월9일(토) 오후 2시 30분~10일(주일)

장소 : 논산 씨튼영성의 집

지도 : 광승룡 비오 신부/ 회비 : 1인 3만원

대상 : 마음의 영성수련과 마음기도 체험 원하는

젊은이, 일반신자 및 수도자 누구나

준비물 : 세면, 미사, 성경, 운동화

문의 : 041-733-2992~4 / 011-437-5562

작은예수회 창립 23주년  
회원 감사제

대상 : 6월 7일(목) 11시~17:30

특별강론 : 차동영신부, 문중원 신부  
박성구신부

장소 : 경기도 هن리 작은예수회마을

교통편 : 지역별 출발있음

문의 : 02-777-6444

은 축 경

안철문(이냐시오) 주임신부님  
사제 서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7년 6월 2일(토)

★축하미사 오전 11시 나운동 성당  
(축하연 날 12시 30분)  
나운동 성당 신자 일동

#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 도통동

주임신부 : 625-0091 사무실 : 631-0091 주임신부 : 김 익태  
F A X : 633-0081 수녀원 : 635-0091 서목회장 : 김 기정

- ◎ 금주 구약성경 쓰기 : 잠언 24장 23절~30장 14절
- ◎ 미사 후 성경 읽기 : (당일 쓰실 내용)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 ◎ 전신자 성지순례 : 6월 10일(주일) - 갈매못, 해미성지(신청마감 5월 31일까지 쉬는 교우들도 초대하세요!)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1. 금주 ① 12사도회 모임 30일(수) 후 6:30  
② 봉성체 : 공소 30일(수), 본당 31일(목)  
③ 성모의 밤 31일(목) 후 7:30 성모동산 앞  
④ 성모회 6월 1일(금) 미사 후  
⑤ 주일학교 고백성사일 6월 2일(토)
- 2. 부부 성장을 위한 교육 : 6월~7월 매주 목요일 후 7시~후 9:30 가톨릭 센터 ※ 참가비 : 1인당 7만원, 신청 문의 : 사무실
- 3. 차주 ① 삼위일체 대축일 ② 뿌리아 ③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지난주 봉헌금 : 983,000원 ■ 교무금 : 1,040,000원

## 무주

주임신부 : 322-2308 사무실 : 324-0555 주임신부 : 이성 용  
유지원 : 324-3555 수녀원 : 322-2399 서목회장 : 김 원태

- ◎ 소회합실 에어컨 및 성가번호판 기증하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성모의 밤 행사 : 5월 29일(화) 후 7시 30분
- ◎ 파티마성모님 순례기도 일정 ① 5월 28일(일) 오후 3시-기도(무풍, 안성), 오후 7시 30분-환영미사후기도(본당)  
② 5월 29일(화) 오후 3시-기도(철전, 본당), 오후 7시 30분-환영미사 후기도(성모의밤)  
③ 5월 30일(수) 오전 9시- 기도(본당), 오전 10시- 파견미사
- ◎ 성체강복 : 6월 1일(금) 10시 미사 후
- 1. 금주전례 : 해설-김영훈, 독서-임가영 부부, 봉헌-강금자, 문금숙
- 2. 차주전례 : 해설-김기욱, 독서-변상욱 부부, 봉헌-양호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737,000원 ■ 교무금 : 80,000원

## 순창

주임신부 : 653-1004 사무실 : 652-1004 주임신부 : 송 호익  
F A X : 653-0414 수녀원 : 653-3135 서목회장 : 정 훈열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6521004>

- ◎ 야외 미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첫영성체 대상자 부모님 모임-오늘 미사 후
- 1. 금주모임 : 뿌리아, 테레사회, 올뜨레아-미사 후  
봉성체-31일(목), 제대회-1일(금)미사 후
- 2. 차주모임 : 사목회, 안나회-미사 후, 구역장모임-6일(수)미사 후
- 3. 청소 : 금주-사도들의 모후, 차주-자모이신 마리아
- 4. 차량봉사 : 오용호 정준일, 차주-이우철 김호  
■ 지난주 봉헌금 : 1,190,010원 ■ 교무금 : 140,000원

## 쌍교동

주임신부 : 633-1004 사무실 : 633-4004 주임신부 : 박 성필  
유지원 : 633-4006 수녀원 : 626-1004 서목회장 : 양 장석  
홈페이지 : <http://www.ssangkyo.org>

- ◎ 축 첫영성체 : 6월 10일(일) - 많은 기도 바랍니다.
- ◎ 예비신자 봉헌 서약서 : 6월 10일과 17일 미사 중 봉헌바랍니다.
- 1. 예비신자 교리 시작 : 6월 19일(화), 많은 인도바랍니다.
- 2. 파티마의 성모님 본당 방문 : 6월 8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 3.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 현재 695,140단
- 4. 성지순례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5. 센터 신축헌금 신입액 : 159,924,000원, 납입액 : 130,667,000원
- 6. 감사헌금 : 권혜정 - 5만, 김아네스 - 3만  
■ 지난주 봉헌금 : 1,983,200원 ■ 교무금 : 1,960,000원

## 진안

주임신부 : 433-0750 사무실 : 433-2541 주임신부 : 정 실수  
F A X : 433-7599 수녀원 : 433-1531 서목회장 : 구 동수  
연동관소 : 433-3177 유지원 : 433-2293

-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예수님의 성심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어야겠습니다.
- ◎ 7월 17일 혼인대상자는 면담 신청해주세요.
- 1. 금주 ① 29일(화) 병자영성체  
② 31일(목) 공소미사 없고 본당미사 있음  
③ 1일(금) 미사후 성체조배
- 2. 차주 ① 6일(수) 성지순례 절두산 오전 7시 출발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 오수

주임신부 : 644-9386 사무실 : 642-6319 주임신부 : 서 광석  
F A X : 642-6319 서목회장 : 변 훈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 204,204단
2. 성서를 통독 합니다.
3. 야외미사 준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 금주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황일주, 신광일
5. 차량봉사 : 변훈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 차주전례 : 해설 - 전미숙, 독서 - 김진태, 박춘항
7. 차량봉사 : 김옥기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임실

주임신부 : 643-3661 사무실 : 642-2164 주임신부 : 박 중홍  
F A X : 642-2164 수녀원 : 643-3660 서목회장 : 노 재진

1. 공소미사 : 신전 - 오늘 후 7시
2. 예비자 입교 환영식 : 차주 교중미사중
3. 감사헌금 : 이현순(젠마)-5만원, 이기건(야고보)-5만원
4. 본당성립 50주년 기금 : 변사달(로렌조)-5만원, 김지택(레오)-5만원  
\* 누계-66,834,131원
5. 차주전례(5월 27일) ① 해설-이원섭 ② 독서-백인수 부부  
③ 봉헌-임우주 부부
6. 모임 ① 구역장 회의 - 오늘 미사 후 (본도관)  
② 사목회의 - 6월 5일(화요일) 저녁 미사 후(본도관)
7.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성수 ② 6월 1일(금)-임실2,4  
③ 6월 3일(일)-신평  
■ 지난주 봉헌금 : 820,500원 ■ 교무금 : 520,000원  
■ 사순절 저금통 : 1,298,650원

## 장계

주임신부 : 353-0610 사무실 : 351-0111 주임신부 : 엄 기봉  
F A X : 351-0605 수녀원 : 353-0611 서목회장 : 이상 화

- ◎ 오늘은 성령강림 대축일.쌍암신자 초대주일
- ◎ 성구가혼을 성당 안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 성구 가혼갯기 운동에 참여 합니다.
- ◎ 주교님 사목방문 : 5월 29일(화) 10시 미사.
- 1. 성모의밤 : 5월 31일(목) 오후 8시
- 2. 효도관광 : 일시 6월 7일 (목) 8시 30분 출발  
\*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관광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3. 오늘은 성당주변 환경정리, 미사 후 모두참여합니다
- 4. 예수승천야외미사에 준비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5. 감사헌금 : 이강녀(마리아)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11,350원 ■ 교무금 : 100,000원

## 장수

주임신부 : 351-8888 사무실 : 351-2264 주임신부 : 정 철봉  
F A X : 351-5226 수녀원 : 351-1228 서목회장 : 박 동표

- ◎ 주님승천 대축일행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오늘은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오후 2시 - 외국인들을 위한 미사
- ◎ 주교님 사목방문 및 미사 - 5월 29일(화) 오후 2시
- ◎ 성모님의 밤 행사 - 5월 31일(목) 후 7시 30분
- 1. 금주공소미사 : 번암, 차주-수분, 하동
- 2. 금주참석공소 : 상, 하동
- 3. 금주전례 : 이우미, 차주-김호준
- 4. 금주독서 : 이범수, 김복순, 차주-조스테파노, 이행순
- 5. 금주봉헌 : 장재주, 최인주, 차주-정연수, 최선영
- 6. 차량봉사 : 금주-김철수, 차주-정용석  
■ 지난주 봉헌금 : 567,600원

- ② 7일(목) 어은동미사 전6시, 미사후 사목회
- ③ 9일(토) 첫영성체 세례식
3. 성모의 밤 꽃 봉헌 : 은홍의 모후, 바다의 별 삼만
4. 감사헌금 : 오 세라피나
5. 지난주 다섯 쌍의 혼인객신식이 있었습니다.  
\* 하느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16,000원 ■ 교무금 : 1,325,000원

##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5월 19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초촌동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나운2동, 수류, 원평, 숲정이, 나운동, 여산, 고산 신태인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이동, 팔복, 용안, 순창, 서학동, 월명동, 우림, 신동, 무주, 서신동 영등동,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복자, 오룡동, 시기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소룡동, 봉동, 금마, 용진, 팔마, 솔내, 함열,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송천동, 호성동, 용진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천동, 연지동, 미룡동, 화산동, 송학동, 지곡

### ▶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제22차 청소년주일 담화(요약문)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제22차 청소년 주일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제안했다.

교황은 담화에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다시 일깨워 주고자 한다면서, 먼저 사랑의 ‘발견’을 향한 세 단계의 여정으로 △하느님만이 사랑의 원천 △하느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어,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증언해야 할 일상생활의 세 분야를 거론했다. △첫 번째 분야로 교회 안, 곧 소속된 본당, 공동체, 교회 운동, 청년 모임의 활동에 활기를 불어일으켜 예수의 복음을 또래 젊은이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충실한 사랑을 증언하라는 것 △두 번째 분야는 미래에 대한 준비로, 부부가 되기 전의 약혼 기간은 정결한 언행으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라면서, 약혼자와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을 지켜주고 키워주며 그 사랑이 모든 이기심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라는 것. 또한 하느님께서 직무 사제직이나 봉헌 생활로 부르실 때에도 ‘예’라고 응답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것 △세 번째 영역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재능을 키우고,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계발하라는 것이다.

또한 교황은 사랑이야말로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문화와 문명을 풍요롭게 만들어 인간과 온 인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므로, 인도 켈커타의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복자 마더 테레사처럼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사랑에 뛰어들라’고 젊은이들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사랑의 경지에 다다른 것은 하느님 은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룩한 미사에 규칙적으로 열심히 참석할 것을 권고했다.

교황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라는 요한 사도의 권고를 인용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외침이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빌었다.